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 정기 점검 건설전문가 합동 6개 공구…지반침하·화재예방 중점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반복되는 화재와 지반침하 등 불시적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한다.

토목·전기 등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점검 대상은 2호선 1단계 건설공사 구간 중 차량기지를 제외한 본선 1~6공구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토사 지반과 흙막이 가시설(버팀보, 띠장 등) 설치상태 및 계측관리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여부 ▲소화기·위험물저장소·가설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건설현장 응급·응급 시 안전보건 작업 기술지침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긴급조치 후 관리계획을 수립해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시교육청,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행사

직원들, 희생자 304명 추모·실천다짐 서명 등



광주시교육청은 16일 본청 1층 북카페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선 교육감, 최승복 부교육감, 국·과장, 직원들이 참여해 희생자를 기리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다짐했다.

특히 직원들은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이름이 담긴 명함 옆서에 추모와 실천 다짐을 적었다.

직원들은 ‘세월호의 이름은 어른으로서 교육자로서 통감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활활 날아서 자유롭게...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할게요’, ‘모두가 안전한 나라, 꼭 기억하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적으며, 희생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가슴에 새

겼다.

이어 ▲비판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학생 중심 교육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직무 책임 실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역할 등을 함께 다짐하고,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이 적은 명함 옆서와 종이 뿔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행사 외에도 노란 리본 달기, 세월호 11주기 현수막 및 추모 문구 게시, 사이버 추모관 운영, 세월호 바깥개비 설치 등을 진행했다.

/조선주 기자

GIST, 인문사회과학부 출범식 개최

융합 교육 비전·방향성 대내외 공유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15일 대동 A동에서 인문사회과학부 출범식 및 심포지움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GIST가 지향하는 융합 교육의 비전과 방향성을 대내외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GIST는 지난 2월 1일 학사조직 개편을 통해 인문사회과학부를 신

설하며, 융합 교육 체계의 본격적인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임기철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대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학 A동 정문에서 헌관식, 테이프 커팅, 기념 촬영을 진행하며 인문사회과학부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동기 기자

북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맞춤 지원사업

북구가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판로개척 바꾸쳐 지원(해외 진출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디자인 개발지원 ▲기술이전 지원 등 4개의 분야별 지원사업에 총 2억 2천 5백만 원을 투입하고 사업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북구는 각 사업이 종료되면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후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 사항 등을 수렴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집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추진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기 기자

다시 4월 “한 순간도 잊은 적 없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유족 27명 세월호 사고 해역 방문 “장성한 청년으로 자랐을 자녀 생각” 눈물바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에서 열린 선상추모식에 앞서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세월호 유족이 희생자를 기리는 노란리본을 달고 있다.

히 ‘세월’이 적힌 노란 부표도 쏠렸다. 녘실거리는 바다에는 11년 전 사고 장소를 알리는 녹색 노란 부표가 떠 있었다.

단원고 250여명 희생자들이 호명될 때마다 구슬픈 메아리가 부딪치는 파도 소리와 공중으로 흩어졌다. 호명은 10여분이나 이어지면서 안타

깝게 숨진 청춘들의 수를 실감케했다.

국화꽃을 손에 쥔 유족들은 자녀를 떠나보낸 애석한 바다로 걸음을 재촉했다. 난간에 선 유족들은 그리움과 미안함을 담아 바다에 국화를 던졌다.

한 희생자 어머니는 현화를 마친 뒤 힘이 풀린 듯 한동안 난간에 걸터서서 통곡했다. 먼저 떠난 자식의 이름 석자를 부르는 어미의 애끓는 슬픔이 온 합창에 전달되면서 해경과 참석자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희생자들의 고등학교 교정에 핀 벚꽃도 참사 해역에 흩뿌렸다.

검푸른 바다위에 놓인 수십 송이의 흰 국화와 분홍빛 벚꽃은 한동안 사고 해역을 둥둥 떠돌며 참사의 아픔을 더했다.

김정화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장성한 청년들을 보면 우리 아이는 어떤 청년으로 성장했을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한다”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도=박재영 기자

가족 5명 살해 50대, 광주서 ‘주택사업 사기’ 혐의 수심전 피소

“채무, 민형사 사건 상황 비판 범행” 진술…구속영장 신청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광주광역시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다가 수심전의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광주시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 사업을 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 과정에서 A씨는 조합원 수십명으로부터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동부경찰서는 A씨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 조사를 벌여오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사업 실패로 인한 과다 채무와 관련 민사, 형사 사건이 들어오는 상황을 비판해 범행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남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사업 실패로 인한 과다 채무와 관련 민사, 형사 사건이 들어오는 상황을 비판해 범행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면제를 먹어 가족들을 잠들게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광주광역시에 있는 또 다른 거주지로 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것

으로 추정되는 극단 선택 암시 메모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다른 가족에게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의 신고를 받고 같은날 오전 10시에 현장에 출동해 타살 흔적을 발견, 현장에 없는 거주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광주동부경찰서에 공조 요청해 같은날 오전 11시10분에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악물을 복용한 상태로 광주시 소재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기를 기다렸다가 오후 3시에 긴급체포한 뒤 오후 8시에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목포기독병원, 전남 서남권 최초 ‘CORI 로봇 수술 시스템’ 도입

환자맞춤 정밀 수술…회복 속도·삶의 질 향상 기대

목포기독병원이 개원 28주년을 맞아 전남 서남권 종합병원 최초로 첨단 로봇 보조 인공관절 수술 시스템인 ‘CORI 로봇 수술 시스템’을 도입하고 1호 환자의 수술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CORI 로봇 수술 시스템’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고도 선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으며, 로봇을 통한 인공관절 수술의 정밀도는 환자 개개인의 최적화된 치료가 가능함과 동시에 지역 의료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형외과 성주형 과장은 “CORI 로봇 수술 시스템은 기존 수술과 비교했을 때 더욱 정교하게 뼈를 절삭하고, 인공관절 삽입 위치와 각도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수술 후 통증 감소와 빠른 재활이 장점”이라며 “또한 기존 인공관절보다 인공관절의 수명이 연장되는 장점 또한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주형 과장은 “CORI 로봇 수술 시스템은 수술 중 뼈의 불필요한 제거를 줄이고, 인공관절과 환자의 뼈가 정밀하게 결합되도록 하는 수술 기법으로 특히 고령 환자나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수술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근호 대표원장은 “이번에 도입된 CORI 로봇 수술 시스템 도입으로 우리 전남 서남권 주민들도 이제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고도 선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매우 기쁘다”며 “목포기독병원은 첨단 의료 시스템 도입과 의료진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독병원은 이번에 도입된 ‘CORI 로봇 수술 시스템’을 시작으로 인공관절 외에도 척추, 스포츠 손상 등 정형외과 전반에 걸쳐 로봇 수술의 활용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김근호 기자

전남도, 구제역 추가발생 돼지농장 부분 살처분

임상증상 있거나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전남도는 구제역 추가 발생 돼지농장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임상증상이 있거나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면 해당 개체만 부분 살처분한다고 밝혔다.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2회 모두 임상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양성축이 추가 확인되면 신속히 살처분한다.

지난 10일 구제역이 발생한 무안 2개 농장은 폐지 축종에서 최초 발생해 모두 살처분됐다.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마지막 매몰(바이러스 검출일)이 끝난 날부터 3주가 지나고, 가족의 바이러스 검사, 임상검사, 항체검사와 환경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까지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살처분하지 않은 돼지는 모두 즉

시 접촉하고 2주 간격으로 2회 추가 접촉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방역조치 해제 시까지 농장주와 근로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축사 출입 시 반드시 의복을 탈의 후 방역복 착용,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김도기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nmae.co.kr

서구, MZ 공무원과 ‘5·18 인권 현장 투어’ 실시

서구는 5·18 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3회에 걸쳐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 90여명을 대상으로 ‘5·18 인권 현장투어’를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억과 공감의 시간여행’을 주제로 5·18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MZ세대 공직자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고 세대 간 폭넓은 공감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공직자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서구는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민주·인권의 정신이 깃든 ‘5·18 역사공원’ ▲군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을 담은 ‘5·18 자유공원’ ▲헬기 사격의 흔적을 간직한 ‘전일빌딩245’ 등 5·18 기념 공간을 방문할 계획이다.

특히 5·18 자유공원에서 1980년 당시 상황을 재현한 5·18 상황극 관람과 함께 연대와 나눔의 상징인 주먹밥을 만들면서 당시 시민들의 용기와 공동체 정신을 체험한다.

전일빌딩245에서는 헬기 사격으로 생긴 탄흔과 사료 관함을 통해 민주화 운동의 역사 인식 및 민주주의와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조선주 기자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결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K이사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조합의 본안판결 시까지 K이사장의 직무집행을 금지하며, A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소송 비용은 K이사장이 부담하게 된다.

K이사장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정관을 무시하고 2024년 5월 17일 사무국장을 신규 채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직무정지와 사무국장 채용 무효 등을 가결했고, 이를 공고했다.

K이사장은 2차 및 3차 이사회 소집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또한, K이사장이 채용한 B사무국장은 조합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순천=조순연 기자